

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['25. 5월]

- 국제원자재 가격, 하방압력 속 미국과 주요국 관세협상이 단기 방향성 좌우 -

오정석 | 전문위원(3705-6231)

동향

- [원자재지수] 4월 S&P GSCI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세계 성장둔화 우려로 큰 폭 하락(-8.8%). 부문별로 에너지 큰 폭 하락, 산업금속 약세, 농산물과 귀금속 상승 등 차별화
 - 부문별로 에너지 -17.0%, 농산물 +1.6%, 산업금속 -5.4%, 귀금속 +4.5%, 축산물 +2.9%
 - 연간으로 S&P GSCI -5.7%, 에너지 -15.8%, 농산물 -0.1%, 산업금속 -1.0%, 귀금속 +24.6%
- [품목별] WTI-18.6%, 미국천연가스 -19.3%, 궤회발유 -11.7%, 옥수수 +2.2%, 대두 +2.0%, 원당 -7.4%, 구리 -6.0%, 알루미늄 -5.3%, 니켈 -3.1%, 금 +5.3%, 철광석 -2.2% 등
 - 국제유가는 미국 상호관세, OPEC+ 증산 등의 영향으로 월초 큰 폭 하락. 월 중반 반짝 반등 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, 미국 1분기 역성장으로 월말 4년래 최저치 기록

주요 이슈 및 전망

- [원유] 국제유가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나, 세계 성장둔화 우려와 OPEC+의 증산 예고 등으로 반등폭은 제한되고 전체적으로 하방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
 - 미국-이란 핵 협상과 러-우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세계 원유공급 증가 기대감이 증폭되며 유가 하방압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
- [곡물] 국제곡물 가격은 주요국의 파종이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당분간 방향성 탐색 국면이 예상. 미국 중서부, 러시아 흑해 등 주요 지역의 농업기상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예측불가능한 변수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
 -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옥수수, 대두, 쌀 등이 협상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. 이는 곡물 가격 전반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- [금속] 비철금속 가격은 상호관세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되는 만큼 하방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. 다만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 간 관세협상이 진행되고 있고, 달러화 향방도 불확실해 단기적으로는 강한 변동성을 나타낼 전망
 - 중국 경기지표가 양호하고 악재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, 상호관세의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면 투자심리가 빠르게 냉각될 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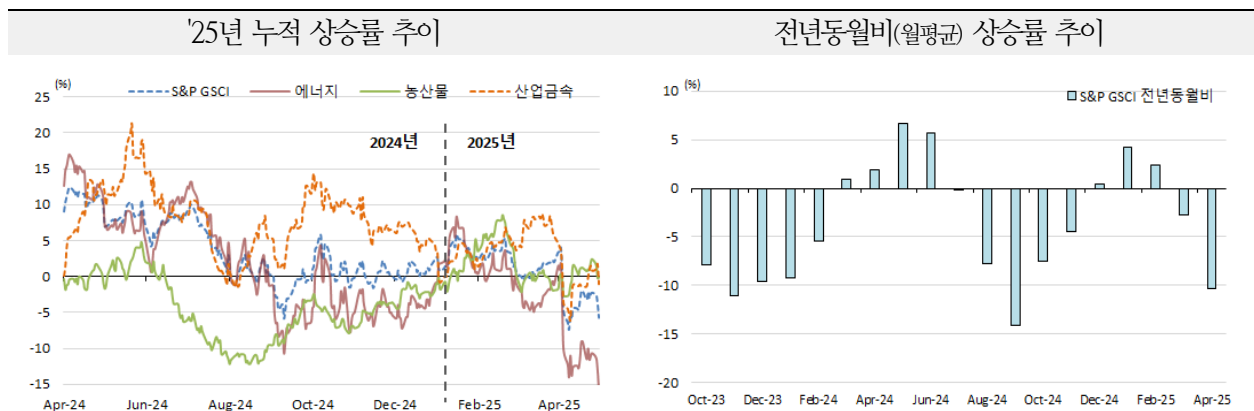
1. 국제원자재 가격지수

□ S&P GSCI 추이

- 4월 S&P GSCI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(4.2일)에 따른 세계 성장 둔화 우려로 큰 폭 하락(-8.8%). 부문별로 에너지 큰 폭 하락, 산업금속 약세, 농산물과 귀금속 상승 등 차별화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자료 : Bloomberg

지수	3월말	4월말	전월말비(%)	연간(%)	전년동월말비(%)
S&P GSCI*	568.08	518.15	-8.8	-5.7	-11.6
에너지	247.14	205.03	-17.0	-15.8	-24.6
농산물	376.46	382.56	+1.6	-0.1	-0.2
산업금속	458.64	433.68	-5.4	-1.0	-9.0
귀금속	4,065.30	4,248.68	+4.5	+24.6	+42.4
축산물	459.81	473.01	+2.9	+12.7	+12.0

* WTI, 美천연가스, 소맥, 옥수수, 원당, 구리, 니켈, 금 등 24개 품목 선물가격으로 구성. 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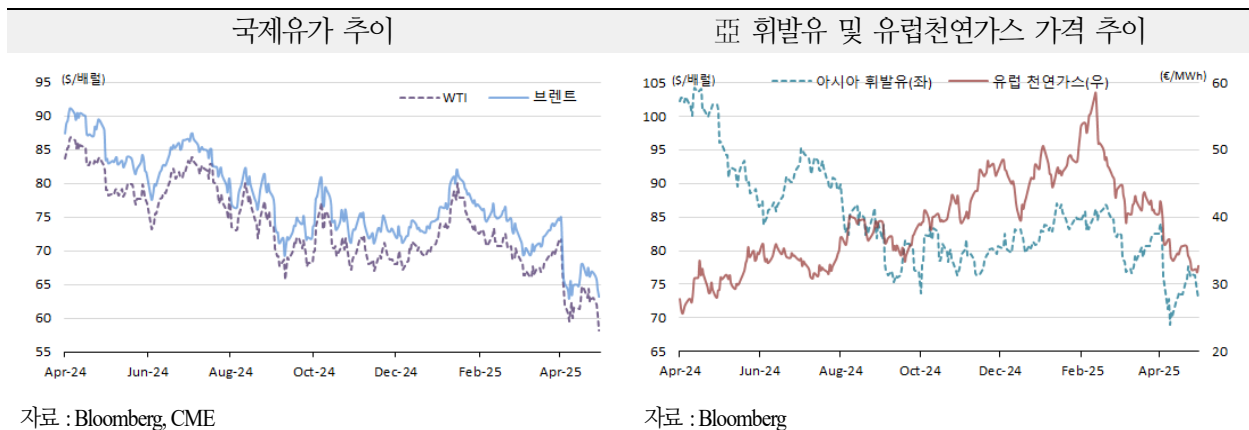
2. 원유

□ [4월 시황] WTI 전월말 대비 -18.6%, 아시아 휘발유 -11.7%, 미국 천연가스 -19.3%

- 국제유가는 美 상호관세, OPEC+ 증산 등의 영향으로 월초 큰 폭 하락. 월 중반 반짝 반등 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, 미국 1분기 역성장으로 월말 4년래 최저치 기록
- 亞 휘발유도 글로벌 무역분쟁에 따른 수요둔화 우려로 하락.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상호관세 외에 계절적 비수기 진입, 재고 증가 등으로 원자재 중 가장 큰 폭 하락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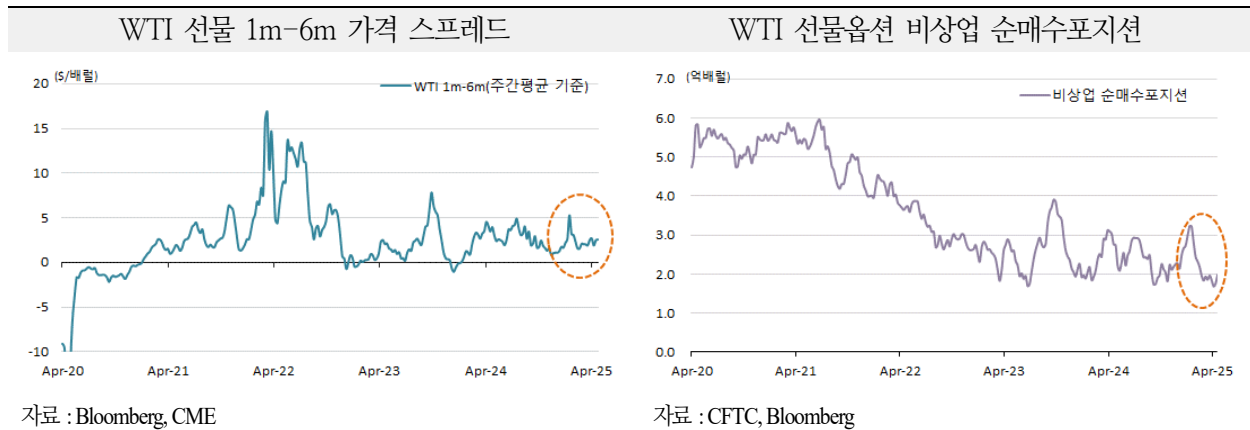
품목	3월말	4월말	전월말비 (%)	연간(%)	전년 동월말비(%)	평균가격	
						'24.	'25.(ytd)
WTI(\$)	71.48	58.21	-18.6	-18.8	-29.0	75.76	69.26
브렌트(\$)	74.74	63.12	-15.5	-15.4	-28.2	79.86	72.85
두바이(\$)	73.63	62.07	-15.7	-17.4	-29.1	79.67	73.59
美휘발유(\$)	95.89	85.55	-10.8	+1.8	-24.9	96.66	88.05
亞휘발유(\$)	82.52	72.89	-11.7	-11.3	-27.7	85.49	79.68
美천연가스(\$)	4.119	3.326	-19.3	-8.5	+67.1	2.409	3.757
유럽천연가스(€)	40.48	32.69	-19.2	-33.0	+12.5	34.55	43.87

주 : NYMEX-ICE 선물가격 기준(유럽천연가스는 네덜란드 TTF). 단 두바이유, 亞휘발유(Ron 92 기준)는 현물가격. 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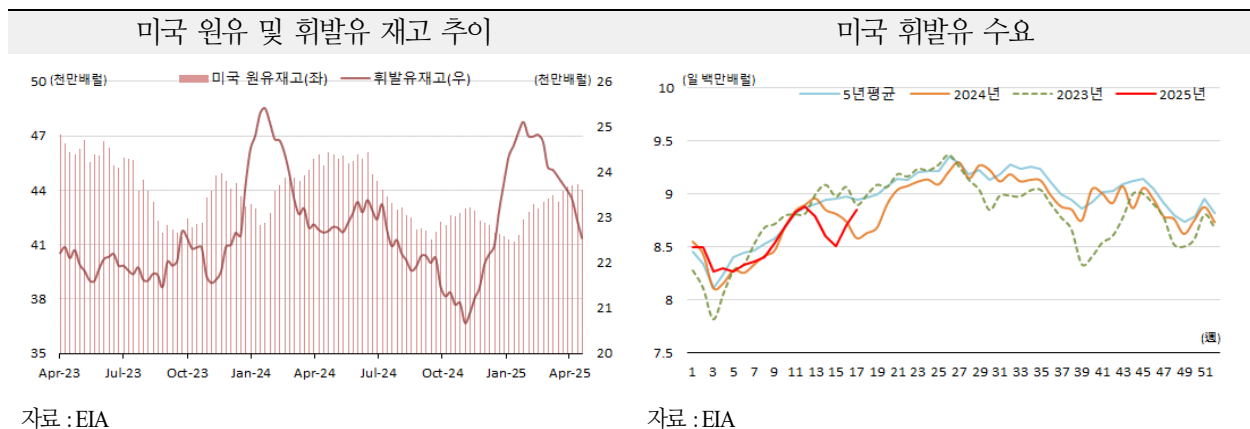


□ 주요 원유 선물시장 및 실물 지표 점검

- WTI 선물시장 지표 : 상호관세 불구 백워데이션 지속, 저가 매수세 유입
 - WTI 근월물 vs. 6월물 가격스프레드(週평균)은 4.11일 \$1.87까지 하락한 후 4.25일 \$2.52로 美 상호관세 발표 전 수준을 회복. 미국-주요국 관세 협상 기대감을 반영
 - WTI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пози션은 4.22일 1.99억 배럴로 전월말과 비슷한 수준 유지. 투자심리가 여전히 취약하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평가



- 미국 실물지표 : 원유생산 감소, 원유재고 증가, 휘발유재고 감소, 설비 가동률 부진 등
 - 원유생산은 4월 중 일일 1,347만 배럴로 전월 대비 -12만(-0.8%). 원유재고는 4.25일 4.40억으로 전월 말보다 +62만(+0.1%), 연초 대비 +2,577만(+6.2%)으로 증가세 지속
 - 반면 휘발유재고는 4.25일 2.26억 배럴로 전월 말 대비 1,204만 감소(-5.1%). 4월 들어 휘발유 수요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가동률은 부진한 데 기인



- OPEC 및 중국 지표 : 사우디 5월 수출가격(OSP) 큰 폭 인하, 중국 원유수입 증가
 - 사우디의 OSP 큰 폭 인하는 산유국 간 점유율 경쟁의 신호탄이라는 시각 제기. 한편 3월 중국 원유수입은 5,141만 톤으로 '23년 8월 이후 처음으로 5천만 톤 상회

	1월	2월	3월	비고
OPEC생산(일 백만 배럴)*	26.72	26.85	26.78	• 이라크, 나이지리아, 리비아 등 감소
사우디 생산*	8.94	8.96	8.96	-
사우디 OSP(對亞)**	\$3.9(3월인도)	\$3.5(4월인도)	\$1.2(5월인도)	• 4년래 최저 수준으로 인하
중국 원유수입(백만 톤)**	41.17	42.69	51.41	• 전년동월 대비 +4.8%, 4개월 만에 증가

주 : OSP(Official Selling Price)는 두바이유/오만유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을 의미. 자료 : *OPEC, **Bloomberg

□ [관전포인트] OPEC+ 생산 확대, 세계 원유수요 하향조정, 미국-이란 핵 협상 등

- OPEC+ 증산 규모, 4월 일일 14만 배럴 → 5월 41만에 이어 6월 추가 증산 가능성
 - 5월 증산 결정은 생산쿼터를 초과하여 생산하고 있는 카자흐스탄, 이라크, UAE를 견제하기 위해 사우디가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며, 일부 회원국은 6월에도 생산량을 늘릴 것을 제안. 원유생산을 둘러싼 OPEC+ 내부 갈등설도 제기되는 상황
 - 당초 카자흐스탄과 이라크 등은 일일 37만 배럴의 보상 감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었으나, 카자흐스탄이 독립된 석유메이저들의 감산을 강제할 수 없으며 생산량은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혀 보상 감산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미지수
- 주요 기관, 상호관세 여파로 세계 원유수요 전망 하향조정
 - OPEC, IEA, EIA는 4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원유수요 전망을 전월보다 일일 15~49만 배럴 하향조정하고 추가 하향 가능성을 시사. 하향조정분의 절반은 무역분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분석
 - IEA는 수요 부진과 비OPEC+ 공급 확대로 내년 4분기까지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, 특히 금년 4분기~내년 1분기 공급과잉 규모는 일일 100만 배럴을 넘을 것으로 전망
- 미국-이란 핵 협상 진전. 다만 미국은 이란의 원유수출 제재를 강화
 - 미국과 이란은 4월 중 세 차례 핵 협상을 가졌으며, 양측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. 아직까지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나 일부에서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
 - 한편 미국은 4월 중순 이란산 석유를 구매한 중국 정유기업 '산둥성싱화화'를 제재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을 병행(※중국 석유기업 제재는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)

□ [전망] 국제유가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나, 세계 성장둔화 우려와 OPEC+의 증산 예고 등으로 반등폭은 제한되고 전체적으로 하방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

- 미국-이란 핵 협상과 러-우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세계 원유공급 증가 기대감이 증폭되며 유가 하방압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전망(\$/배럴)〉

	4월(a) ¹⁾	'25. 2Q(f) ²⁾	3Q(f) ²⁾	4Q(f) ²⁾	'26. 1Q(f) ²⁾
WTI	62.96	65(-4.2)	64(-4.1)	66(-1)	65(-2.5)
브렌트	66.46	68(-4.8)	68(-4)	69(-1)	66.3(-4.2)

주. 1) 4월 평균값 2) 4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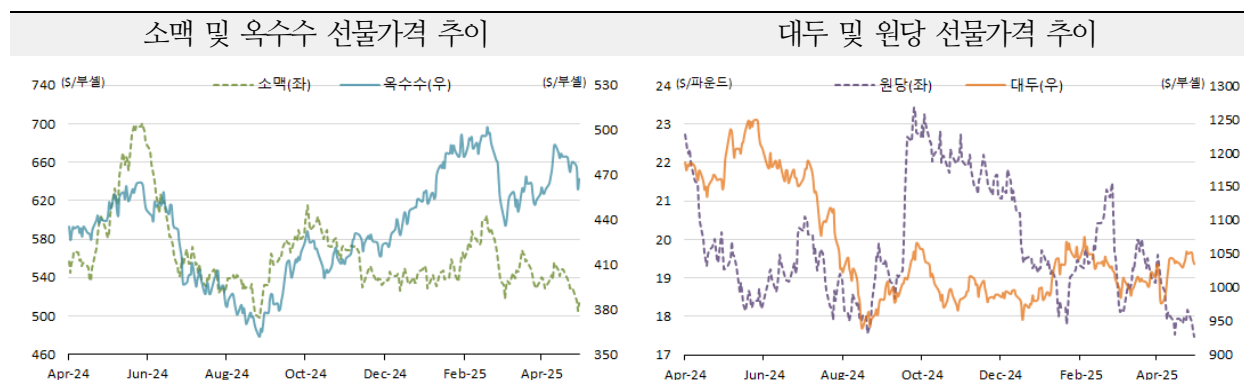
3. 곡물

□ [4월 시황] CBOT 옥수수 전월말 대비 +2.2%, 소맥 -4.5%, 대두 +2.0%, 원당 -7.4%

- 옥수수 가격은 美 상호관세 불구 양호한 수출, 재고 전망 하향조정 등으로 상승했으나 중반 이후 상승폭 축소. 대두는 미중 협상 기대감,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 상승
- 소맥 가격은 美 대평원 강우 소식(→가뭄 완화), 유럽 작황 개선 기대감 등으로 하락. 원당 가격은 글로벌 수급 불안 속에서도 관세에 따른 美 수요 둔화 가능성 등으로 하락

품목	3월말	4월말	전월말비 (%)	연간(%)	전년 동월말비(%)	평균가격	
						'24.	'25.(ytd)
소맥(cents/부셸)	537.00	513.00	-4.5	-7.0	-12.3	572.42	549.61
옥수수(cents/부셸)	457.25	467.25	+2.2	+1.9	+6.3	423.82	472.16
대두(cents/부셸)	1,014.75	1,034.75	+2.0	+3.7	-9.7	1,101.59	1,025.50
쌀(\$/cwt)	13.57	12.95	-4.6	-7.7	-31.5	16.50	13.67
원당(cents/파운드)	18.86	17.46	-7.4	-9.3	-11.4	20.74	19.06

주 : CBOT·ICE 선물가격 기준. 부셸은 27.2kg, cwt는 45.4kg. 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, CBOT

자료 : Bloomberg, CBOT, ICE

□ 세계 곡물시장 주요 지표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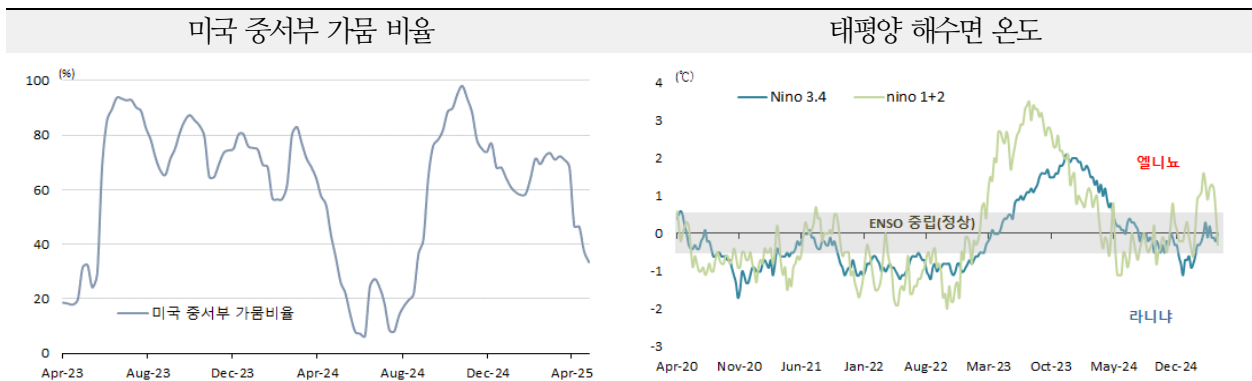
- 미국 파종 및 작황 : 주요 곡물의 초기 파종은 예년보다 다소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, 겨울밀의 양호 및 우수 비율은 전년동기와 동일

	파종률			작황(Good/Excellent Ratio)	
	전년동기	4.27	'20~'24 평균	4.27	전년동기
소맥(겨울밀)	-	-	-	49%	49%
소맥(봄밀)	31%	30%	21%	-	-
옥수수	25%	24%	22%	-	-
대두	17%	18%	12%	-	-

자료 : USDA

○ 농업기상여건 : 미국 중서부 및 남부 평원 가뭄 비율 하락, 태평양 해수면 온도 안정

- 美 중서부 지역 가뭄 비율은 4.29일 33.5%로 3월초 대비 39.8%p 하락, 남부 평원은 61.8%로 고수준을 지속했으나 3월 중순보다 23.6%p 하락. 중서부 및 남부 평원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평년 수준의 강우량이 예상
- 동태평양 적도(Niño 3.4) 해수면 온도는 4.23일 평년 대비 0°C로 2월 중순 이후 ENSO 중립(라니냐/엘니뇨 아닌 상황) 유지. NOAA는 금년 여름까지 ENSO 중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, 10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50% 이상으로 평가



자료 : US Drought Monitor

자료 : NOAA

○ 세계 곡물수급 : 미국 농무부는 4월 보고서(WASDE)에서 '24/'25년 전체 곡물의 세계 생산 전망을 28.28억톤으로 전월보다 0.1% 상향조정. 기말재고 전망도 0.2% 상향

- '24/'25년 세계 옥수수 생산 전망은 0.1% 상향, 소비는 0.2% 상향. 이에 따라 기말재고 전망은 0.4% 하향

<세계 곡물수급 전망(억 톤)>

	'23/24	'24/25		전년비	전월비		'23/24	'24/25		전년비	전월비
		3월	4월					3월	4월		
곡물						소맥					
생산	28.20	28.26	28.28	+0.3%	+0.1%	생산	7.92	7.97	7.97	+0.7%	-0.05%
소비	28.19	28.61	28.62	+1.5%	+0.03%	소비	7.98	8.07	8.05	+0.9%	-0.2%
기말재고	7.94	7.58	7.60	-4.3%	+0.2%	기말재고	2.69	2.60	2.61	-3.1%	+0.2%
재고율	28.2%	26.5%	26.6%	-1.6%p	+0.1%p	재고율	33.7%	32.2%	32.4%	-1.3%p	+0.2%p
옥수수						대두					
생산	12.29	12.14	12.15	-1.2%	+0.1%	생산	3.96	4.21	4.21	+6.1%	-0.04%
소비	12.20	12.39	12.42	+1.8%	+0.2%	소비	3.83	4.09	4.11	+7.1%	+0.4%
기말재고	3.14	2.89	2.88	-8.5%	-0.4%	기말재고	1.15	1.21	1.22	+6.2%	+0.9%
재고율	25.8%	23.3%	23.2%	-2.6%p	-0.1%p	재고율	30.1%	29.7%	29.8%	-0.3%p	+0.1%p

자료: USDA WASDE('25.4월)

□ [관전포인트] 미국 주요 곡물수출, 금융투자자 포지션, 세계 원당 수급 등

- 미국 주요 곡물의 수출은 상호관세 협상 결과가 관건
 - 美 농무부는 '24/'25년 미국의 옥수수과 대두 수출이 6,477만톤과 4,967만톤으로 전년보다 11%, 8% 늘어날 것으로 전망. 달러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 등에 기인
 -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산 옥수수와 대두 수입 확대를 제안할 가능성. 특히 미중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경우 중국이 브라질 위주의 대두 수입선을 미국산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
 - '24년 중국의 대두 수입은 1.05억톤(사상 최대)이었으며, 이중 브라질산 비중이 70%에 육박
- 주요 곡물의 금융투자자 순매수포지션,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증가 전환
 - CBOT 옥수수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2.18일 43.2만계약(3년 최고치)에서 상호관세 충격으로 4.8일 9.2만으로 급감 후 4.22일 14.6만으로 회복. 대두 순매수 포지션도 4.8일 -3.4만에서 4.22일 5.2만으로 반전
 - 상호관세 시행 90일 유예, 달러약세, 미국 수출 양호 등으로 투자심리 회복 평가
- 세계 원당 수급, 생산 증가에도 수요 호조로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
 - 美 농무부에 따르면 '24/'25년 세계 원당 생산은 1.87억톤으로 전년 대비 +1.5%, 수요는 1.89억톤으로 +4.3%, 기말재고는 4.54억톤으로 -6.1% 예상. 인도(+4.4%)와 태국(+16.3%)이 증산을 주도하는 반면 브라질(-5.6%)은 부진 가능성
 - 다만,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무역분쟁 격화 시 수요가 예상보다 약화될 가능성 상존

□ [전망] 국제곡물 가격은 주요국의 파종이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당분간 방향성 탐색 국면이 예상. 미국 중서부, 러시아 흑해 등 주요 지역의 농업기상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예측불가능한 변수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

-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옥수수, 대두, 쌀 등이 협상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. 이는 곡물 가격 전반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곡물 전망(cents/부셸)〉

	4월(a) ¹⁾	'25. 2Q(f) ²⁾	3Q(f) ²⁾	4Q(f) ²⁾	'26. 1Q(f) ²⁾
소맥	535.19	550(-25)	545(-42)	550(-25)	585(-22.5)
옥수수	473.31	469.8(+2.3)	470(+5)	460(-)	445(-10)
대두	1,028.61	990(-16.7)	975(-36.5)	960(-15)	975(-5)

주: 1) 4월 평균값 2) 4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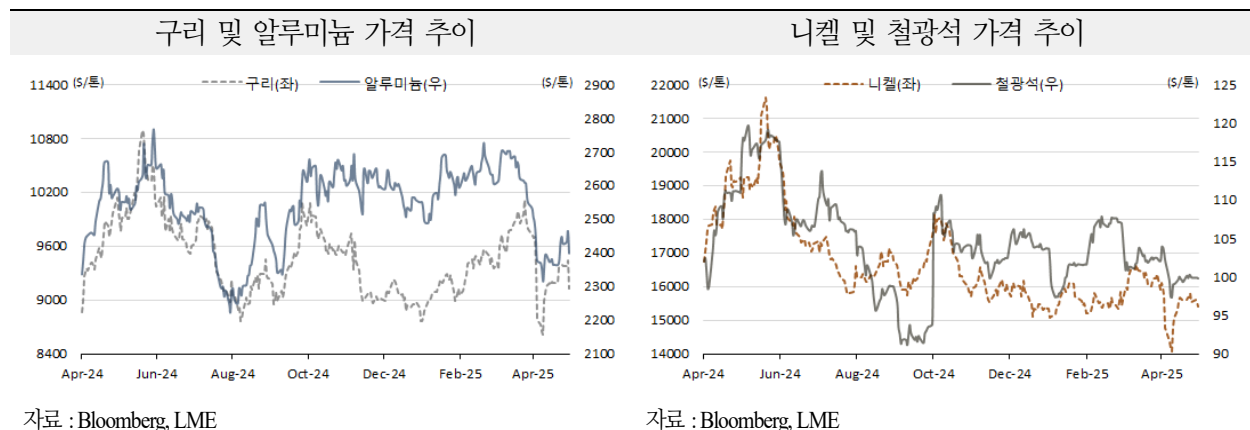
4. 비철금속

□ [4월 시황] LME 구리 가격 전월말 대비 -6.0%, 알루미늄 -5.3% 니켈 -3.1% 등

- 구리 가격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5영업일 간 11% 급락하였으나 미국-주요국 협상 기대감, 中 경기부양 기대, 달러 약세 등으로 월 중반 이후 낙폭 축소, 니켈도 낙폭을 상당부분 만회
- 알루미늄 가격은 미국의 수입관세 부과(2월) 이후 수요 불확실성으로 2개월 연속 하락. 철광석 가격도 미중 무역분쟁으로 하락했으나 중국 경기부양 기대 등이 낙폭을 제한

품목	3월말	4월말	전월말비(%)	연간(%)	전년 동월말비(%)	평균가격	
						'24.	'25.(ytd)
구리(\$/톤)	9,710	9,125	-6.0	+4.1	-8.7	9,266.2	9,365.0
알루미늄(\$/톤)	2,533	2,400	-5.3	-6.0	-7.4	2,457.8	2,572.0
니켈(\$/톤)	15,918	15,418	-3.1	+0.6	-19.9	17,052.0	15,681.4
아연(\$/톤)	2,852.5	2,592.5	-9.1	-13.0	-11.4	2,811.3	2,816.2
납(\$/톤)	2,012	1,958	-2.7	+0.3	-11.7	2,103.1	1,980.4
금(\$/온스)	3,123.57	3,288.71	+5.3	+25.3	+43.8	2,389.7	2,952.3
철광석(\$/톤)	102.04	99.76	-2.2	-3.7	-10.1	110.04	102.16

주 : 철광석은 SGX의 호주산 중국 북부행 순도 62% 기준 자료 : Bloomberg



□ 주요 지표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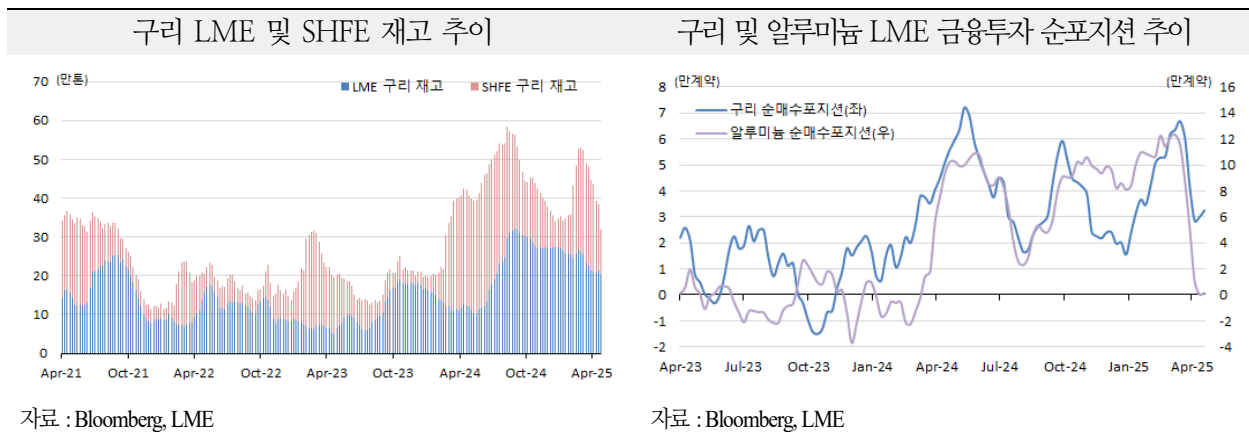
- 중국 경기 : 4월 제조업지수 큰 폭 하락, 3월 산업생산 및 소비 예상치 상회 등

	2월	3월	4월	비고
PMI(국가통계국)	50.2	50.5	49	• 16개월래 최대폭 하락, 시장 전망치(49.8) 하회
산업생산(yoy)	+5.9%(1~2월)	+7.7%	-	• 예상치는 +5.6%. 소매판매는 +5.9%(예상 +4.2%)
신규 주택가격(mom)	-0.1%	0.0%	-	• 전년동월 대비 -4.5%로 낙폭(2월 -4.8%) 축소

자료 : Bloomberg

○ 거래소 재고 : 구리·알루미늄·니켈 감소, 아연 증가

- 구리 재고는 4.30일 28.9만톤으로 한달 전 대비 15.9만톤 감소(-35.4%, LME -1.3만, SHFE -14.6만). 미국의 구리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. 알루미늄 재고도 59.1만톤으로 11.1만톤 감소(-15.8%, LME -5.0만, SHFE -6.1만)
- 니켈 재고는 SHFE에서 한달 전보다 0.8만톤 줄어든 영향으로 0.7만톤 감소(-3.1%)했으나, 4년래 최고 수준은 유지. 아연 재고는 LME 증가(+3.4만)가 SHFE 감소(-2.4만)를 상쇄하여 1.0만톤 증가(+4.7%)



○ LME 비철금속의 금융투자자 순매수포지션 급감

- 구리 선물의 금융투자자 순포지션은 3월 중순 6.7만계약에서 4.25일 3.2만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(-46.3%). 알루미늄의 순포지션은 11.6만 → 0.2만, 아연은 3.8만 → -161 계약으로 급감
- 미국 상호관세 발표 이후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된 데 따른 것으로 평가

○ 구리 현물 프리미엄(현물가격-3개월물 가격) 보합선 회복, 알루미늄은 마이너스 폭 확대

- LME 구리 현물 프리미엄은 3월말 -\$51.3에서 4.11일 \$37.4로 상승 후 4월말 -\$6.8 기록. 알루미늄은 3월말 -\$15.3 → 4월말 -\$27.8, 아연은 -\$16.4 → -\$35.4로 약세 심화
- 구리 프리미엄 상승은 미국향 재고 이동으로 여타 지역 수급이 타이트해진 데 기인

□ [관전포인트] 중국 추가 부양 가능성, 미국 구리 관세 향방, 주요 비철금속 수급 전망 등

○ 중국,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경기부양책을 강화할 가능성

- 1분기 성장률은 5.4%로 예상(5.2%)을 상회. 소매판매, 생산, 투자 증가율이 전분기보다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에 기여. 수출도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예상보다 양호

-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영향이 가시화될 2분기 이후에는 수출이 크게 둔화되고 생산과 고용, 소비도 부진할 가능성. 주요 IB들은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상고하자 패턴 속에서 4%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
-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내수 촉진과 부동산시장 지원 등 경기부양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. 이 경우 성장률이 4% 중반을 유지할 가능성(ING, DB 등)
- 미국, 빠르면 상반기 중 수입 구리에 관세를 부과할 전망
 - 구리에 대한 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25%의 관세 부과를 빠르면 6월 중 시행할 가능성(GS). 관세 시행 전까지 미국의 선취매 영향으로 뉴욕(COMEX)-런던(LONDON) 가격차이가 확대될 전망
 - COMEX와 LME 구리 가격스프레드(근월물)은 연초 \$70 → 4월말 \$1,000 내외로 대폭 확대
- 올해 세계 구리 및 알루미늄 수급 전망, 공급부족에서 공급과잉으로 최근 조정
 - 올해 세계 공급과잉 규모는 구리 10만톤, 알루미늄 58만톤으로 예상(GS). 무역분쟁에 따른 성장 전망 하향조정으로 중국 등의 수요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,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조정 가능성 상존
- [전망] 비철금속 가격은 상호관세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되는 만큼 하방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. 다만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 간 관세협상이 진행되고 있고, 달러화 향방도 불확실해 단기적으로는 강한 변동성을 나타낼 전망
- 중국 경기지표가 양호하고 악재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, 상호관세의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면 투자심리가 빠르게 냉각될 소지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 비철금속 전망(\$/톤)〉

	4월(a) ¹⁾	'25. 2Q(f) ²⁾	3Q(f) ²⁾	4Q(f) ²⁾	'26. 1Q(f) ²⁾
구리	9,194.4	9,200(-300)	9,200(-400)	9,300(-425)	9,500(-225)
알루미늄	2,405.5	2,550(-50)	2,500(-100)	2,550(-100)	2,612(-53)
니켈	15,326.0	15,798(-202)	15,687(-538)	16,000(-500)	16,750(-250)
아연	2,642.8	2,722(-203)	2,700(-162)	2,737(-138)	2,812(-25)

주: 1) 4월 평균값 2) 4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
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문의: 02-3705-6231 혹은 js@kcf.or.kr, 홈페이지: www.kcf.or.kr